

일본인 투자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대구·경북지역을 사례로-

강철구*

kcheolgu@pcu.ac.kr

Contents

- I 서론
- II. 외국인 투자기업의 선행연구 및 경영형태
- III. 일본인 직접투자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 IV. 일본인 투자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V. 결론

Abstract

本研究は、大邱・慶北地域の日本人投資企業が地域経済に及ぶ影響及び時事点などを提示しようとする目的を持っている。大邱・慶北地域の日本人投資企業の比率は外国人投資企業の57%を占めている。また、大邱・慶北地域は立地条件及び価格競争力で、他地域に比べて地域経済規模が拡大される十分な可能性と誘因を持っている地域であり、機械産業施設がある浦項と蔚山に接近性がよいし、同時に首都圏にも接近しやすい道路及びKTXなどが揃えている。しかし、交通渋滞費用、高い賃金などの物流費用は改選が必要である。その以外に、知的所有権制度の未備、優秀な研究人力の不足、政府支援及び研究開発インフラ不足などは、外国人投資企業から指摘されている。

Key Words : FDI, 日本人投資企業, 地域経済

(FDI, Japanese Investment enterprise, the regional economy)

*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이 연구는 대구경북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I. 서론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조세감면, 현금지원, 재정지원 등 투자인센티브제도¹⁾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투자가 우리나라 경제발전 전에 직접 및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 인센티브란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수익률을 올리거나 비용 및 위험을 감소시켜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을 의미한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는 그 수준도 높아지고 방식도 다양해 지면서 양적·질적으로 크게 확대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소극적인 외국인 투자정책을 유지하였지만, 외환위기 이후부터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 법을 제정한 이후 외국인 투자 자유화를 맞이하였고, 그 핵심내용이 인센티브의 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998~2009년 동안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규모는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투자 분야 역시 과거 제조업 위주에서 이제는 금융, 유통, 관광 등 서비스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 진출해 왔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그 영향을 미쳤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관행 및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고, 기술개발 능력의 향상, 국제생산체제에의 통합 촉진 등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증가하면서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산업주권을 침해하며 오히려 국내기업을 역차별 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의 일본인 투자와 관련하여 대구·경북지역에서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등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대구·경북지역은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까운 국토남동부의 허브지역에

1) 투자인센티브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선후진국 모두 고민하는 정책과제이다.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 투자인센티브를 차별적으로 부여하는 것에 대해 회의를 표명하는 반면, 각국의 인센티브 경쟁은 과열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과연 투자인센티브가 적절한 수준 범위내에서만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장윤중 외, 2001)

입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무역에 있어서 물류비용의 절감효과와 국내 수도권, 충청권, 부산 및 경남권과의 연계성이 강화되는 거점지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 투자기업의 입지조건 및 가격경쟁력에서 타 지역에 비해 지역경제 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과 유인(誘因)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1990년대 이후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이 급속히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FDI가 일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국내 투자여건의 악화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줄어들어 한국의 산업발전을 견인하던 성장동력이 점차 악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와 유사한 산업발전과정을 거친 일본인 투자기업이 오히려 대구·경북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활용 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대구·경북 지역에서 일본인 투자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고 파급효과를 보다 배가시키기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과제에 대해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의 지방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정책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목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제시까지 가능할 것이므로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II. 외국인 투자기업의 선행연구 및 경영형태

2.1. 선행연구

외국인 투가지업은 투자와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통해 투자대상국의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다. UNCTAD의 World Investment Report(1999)의 경우, 자본조달 및 투자증대, 기술능력 및 수출경쟁력 향상, 그리고 고용창출 및 숙련향상 등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FDI를 유치하기 위해 각 국가들은 국가차원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과거와 달리 적극적인 자세로 FDI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들 및 경제체제 전환국들이 적극적으로 FDI를 유치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경제가 고도화할수록 FDI가 경제활성화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났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국내 투자가 활력을 찾지 못하고 생산성도 정체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FDI에 대한 기대가 커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생산성 및 생산성 파급효과가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외국인 투자 자체가 최초단계부터 잠재력이 큰 기업에 투자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이 외국인 투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Kang, 2005)²⁾.

이러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우리나라 내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기동 외(2008)의 경우, 우리나라 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선택에 관한 연구 결과,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수도권에 입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투자기업의 집적에 따른 유인효과가 선행 한국기업의 집적에 의한 유인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석남(2006)은 1985~2002년까지 우리나라에 유입된 FDI 결정요인을 기존의 경제변수들 외에 국가별 신용도, 정치적 안정성 등 비경제변수를 분석모형에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즉, 한국의 시장규모가 클수록, 개방도가 높을수록, 인적자원 개발수준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을수록 FDI 유입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임금, 조세, 정부규제, 정부 부패정도, 노사분규는 부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내 일본인 기업에 대한 연구 중에는 김삼수(1996), 이형오·한미경(2005), 奥田(2002) 등이 사례연구와 설문조사를 한 경우가 있다. 황석준 외(2009)에 의하면, 대구·경북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외국인 기업들이 초기 입지를 선정할 때 대구·경북지역에 입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아

2) 반대로 이병기(2002)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분석해 봤더니, 외국인 자본이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무런 연고도 없는 가운데 생산 및 관리비의 이점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지리적 접근성의 용이함으로 인한 운송비 절약이라는 유리한 점 때문이 아니라, 사업적인 연관관계를 가진 상대 파트너기업이 대구·경북지역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결국 외국기업을 유치할 때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 중 하나가 사업상 연관관계를 가진 지역 내 국내기업과의 관계 또는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2.2.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형태

다국적 기업의 현지국 내 경영형태와 관련된 주요 이슈는 경영활동의 현지화와 의사결정 위치 문제이다. 경영활동의 현지화와 의사결정 문제간에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경영활동의 현지화이다. 이는 범 세계적 통합(Global integration)과 지역별 대응(local responsiveness), 그리고 표준화(standardization)와 현지적응화(local adaptation) 등과 관련된 문제로서, 기본적으로 국가 시장간의 환경차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즉, 전자가 전반적인 경영전략의 방향 측면에서 논의되는 이슈라고 한다면, 후자는 국제마케팅 분야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글로벌화의 진전이라는 수요측면에서의 흐름과 규모의 경제에 따른 원가절감이라는 공급측면에서의 장점으로 표준화전략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지만(Levitt, 1983), 기업 내외부의 상황에 따라 표준화 및 현지적응화 정도가 결정된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둘째,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자회사간의 의사결정에 관한 집중 정도를 언급할 때 재무 및 인사, 마케팅, 생산 등 기능별 의사결정 영역에 따라서도 좌우되지만, 동일 기능 내에서도 의사결정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변수로서는 경영활동의 현지화를 들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의 집중화는 마케팅 프로그램의 표준화(standardization)와 관련성이 높고, 마케팅 프로그램의 현지적응화(local adaptation)는 의사결정의 현지 적응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경영성과와 관련해서는, 특정 경영형태가 성과 측면에서 다른 요인보다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다국적 기업의 현지국에서의 경영형태는 현지 문화에 순응하거나 적합성(congruence)을 보일 때 좋은 성과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Newman & Nollen(1996)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의 해외법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현지 문화와의 적합성을 높이는 경영 방식을 취했다니 성과도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 예로 개인주의적 성향이 높은 국가에서는 근로자들의 개인적 기여를 중시하는 경영방식을 택하는 것이 더 높은 성과를 보일 것이고, 집단주의적 성향이 높은 국가에서는 공동체의식을 함유하도록 하는 경영방식이 더 높은 성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KIET(2002)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일본인 기업의 투자목적을 분류하였을 때, 한국시장을 개척하려는 비율이 43.2%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왔다. 이는 일본기업의 한국투자 목적이 한국시장 개척과 확보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다음이 생산거점 확보 및 적정분업체제 구축을 위해 투자하는 업체가 각각 1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보수집력 강화, 거래 파트너의 요청 등이 일본인 기업의 한국시장에 대한 투자 목적이었다.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인 기업을 분류해 보면, 단독투자가 52.4%로 가장 높고, 합작투자로서 지분참가 10~50% 미만이 28.6%, 합작투자로서 지분참가 50% 이상이 14.3%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상위 두 가지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상술할 수 있다.

(1) 현지시장 지향형

현지시장의 규모 또는 성장성에 주목하여 진출하는 투자로서 주로 선진국에 대한 투자형태이다. 무역마찰을 회피하기 위한 수출 대체형 직접 투자도 시장지향형 직접 투자의 일종으로서, 일본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이러한 형태로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 형태의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업종별로 구분하여 본다면 일반기계와 정밀기계 분야의 경우 한국 투자에서는 현지시장 확보를 목적으로 한 투자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2) 현지생산 거점형

국내와 비교하여 해외에서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기 위한 투자로서 주로 개도국에 대한 투자 형태가 현지생산 거점형이다. 엔고 현상 등으로 인한 일본의 고비용 구조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에 생산거점을 이전하여 현지에서 수출 또는 일본으로의 역수입을 위한 생산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인데, 한국의 경우 투자코스트가 높아 해당 형태의 투자는 활발하지 못하다.

III. 일본인 직접투자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3.1. 자료수집

본 논문은 대구·경북지역 일본인 투자기업과 관련하여 기초통계 구축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일본인 투자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이다. 설문대상기업으로는 2009년 말 현재 대구·경북지역의 일본인 투자기업, 일본인 투자지분을 30% 이상, 제조업 등을 기준으로 50여개 표본기업을 추출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하여 회수한 것은 18사에 불과하여 추후 전화인터뷰를 통해 기본 통계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표 1〉 일본인 투자기업 설문조사 현황(2010. 8. 16~10.1)(단위 : %)

경영환경	긍정 (상)	보통 (중)	부정 (하)	비고
대구·경북지역의 입지인프라에 만족하는가? ³⁾ (투자동기)	54	23	23	수도권에 비해 투자비용 저렴한 것이 가장 큰 만족, 투자인센티브 이용 강점 생산요소의 확보용이성 및 생산요소의 질적 수준과 밀접한 관련 ⁴⁾ 기존 국내기업 및 상대 파트너기업과의 사업관계 유지에 따른 지역선정
최초 투자시점 대비 경영환경은 개선되었는가?	78	12	10	선진화되고 있는 한국의 경영환경 실감

행정기관의 서비스(행정절차, 세무관련 환경 등)	81	15	4	전혀 차별이 없다 차별을 느낀 적은 없다
언어소통의 편의성은?	83	17	0	경영인 대부분이 일본어 가능 ⁵⁾
인력수급의 어려움 (한국 노동력)	16	23	61	30% 일본인투자법인이라는 것이 오히려 장점(미래 성장에서의 프리미엄 역할) 인력수급에는 문제없지만 우수인력에는 한계를 느낀다. 수도권 대학생을 받아본 적이 없다 간부의 고급인력 수급은 가능, 그러나 신입사원은 무리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 정도	65	18	17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급여 요구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기술자의 경우 숙소 및 가족동반 비용지불 부담
임금수준	63	16	21	투명경영으로 임금수준 대체로 만족 성과급 지급
기업거래 만족	52	38	10	사업시작 전부터 상대파트너와 인적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만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따른 어려움 존재
협력업체는 충분한가?	71	21	8	대구·경북지역의 타 기업들과의 특정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형성에 유리

위 설문에서 다 기록하지 못한 인터뷰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대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기계산업시설이 있는 포항과 울산 및 동남부 산업벨트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고 동시에 수도권에도 쉽게 연결되는 도

- 3) 한편, 박재곤 등(2005)의 연구에서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충분한 유인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의 기업유치에 대한 성과가 미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산업연구원의 기업의 지방이전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장 및 기술정보의 부족, 인력확보의 곤란, 시장과의 거리, 협력업체의 부족 등을 들고 있어 지방투자환경의 질적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필자의 인터뷰 결과와는 상반되는 연구결과이다.
- 4) 예를 들어 '한국OSG' 기업의 경우, 창업주가 대구·경북지역의 대학졸업자로서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생산요소 및 판매시장에 대한 정보획득이 용이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필요한 인력은 중간기술의 인력수준으로 대구지역 내 교육여건이 이러한 인력수준을 공급하기에 충분하여 기술인력의 확보가능성이 용이하며, 또한 주요 고객기업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으로 이들의 생산입지를 고려할 때 대구가 지정학적으로 좋은 조건이라는 것이다.(황석준 외, 2009).
- 5) 인터뷰 결과 행정절차는 전혀 차별이 없다고 한다. 일본자본이 30%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대해 차별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언어소통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점은 일본과 경쟁하기 위해 일본어와 한국어 모두 가능하지만, 일본인의 경우 대부분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인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로 및 철도망을 갖추고 있어 생산기지로서의 입지조건은 우수하다는 점이다.

둘째, 대기업의 자본재 부품에 의존하던 것을 국산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작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국산화를 목적으로 일본과의 적극적인 기술제휴를 할 예정이다. 즉, 상호 필요성으로 제휴를 하였고 이후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셋째,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 브랜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립산업에 치중하다 보니 부품을 수입하게 되고 국내에서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브랜드에 익숙하기 때문에 국내 중소기업이 자체 브랜드를 갖거나 혹은 유지하기 힘들다. 혹 국산화에 성공한다 해도 수입가격 대비 이윤창출에 어려움이 있어 이 또한 의미를 찾기 힘들다. 불량이 나오면 아예 추가 생산은 하지 못한다.

넷째, 글로벌 브랜드가 국내에 들어와 있어서 대리전쟁이나 마찬가지다. 30%의 외투자본비율은 영향력에 있어서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들의 일본 브랜드에 대한 신뢰 및 이미지 때문이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든 한국시장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리할 뿐 아니라 중국에까지도 진출하기 때문에 일본 브랜드를 부득불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다섯째, 현재 우리 기업(K사)의 본사는 서울이고 공장은 대구이다. 제조업은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 지방이 중국보다 투자비용이 높게 나타난다. 투자비용이 저렴한 지역을 찾다 보니 중국 및 동남아를 찾은 것이다. 중국은 토지와 임금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다. 국내의 경우 대구·경북지역은 인력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수도권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근로자들의 복지 부분을 해결해 줘야 하기 때문에 수도권과 큰 차이가 없어 이곳으로 이전하기를 꺼려하는 경향도 있다.

여섯째, 향후 기업성장과 관련해서는 기술력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관건이다. 일본 엔지니어 역시 단카이 세대(団塊世帯)가 물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력만 갖출다면 오히려 일본 기업을 M&A 할 수 있다고 본다.

대구·경북지역은 1985년 이후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인위적으로 행정적인 분리가 이루어 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구·경북지역을 분리하여 조사할 만큼 다수의 일본인 투자기업이 존재하지 않고, 실제적으로도 경제활동에는 양 지역의 상호의존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두 지역을 분리하지

않았다. 특히 대구의 경우는 대규모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그리고 내륙항과 신국제공항 건설 추진으로 점차 외국인투자의 블루칩으로 주목 받고 있는 지역으로서, 현재 9개 산업단지에 자동차부품, 기계·금속, 전자, 섬유와 관련한 5,000여개 업체가 활발하게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어떤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는 중요한 목적은 해당산업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완화하여 그 산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해당산업 참여자와 정책결정자들이 산업정책에 대한 정책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다(Ifo Institut, 1999). 지금까지 대구·경북지역의 일본인 투자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경제파급효과 등에 관한 연구는 아직은 미미한 상태로 알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기업, 특히 일본인 투자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해당지역에서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연구이다. 또한 지역이 지닌 잠재력과 대응자세에 따라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 및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인 투자기업이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그리고 각각의 효과에 미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있다고 본다.

한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으로서 입지, 물류, 연구개발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입지시설은 기업유치의 중요한 인프라이다. 특히 외국기업들은 국내에 투자를 할 때 국내 지역의 사업환경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입지에정지역이 생산 또는 판매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지의 여부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파악한다. 이와 관련된 실증연구를 보면, 우선 Head et al.(1995)의 경우,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의 미국 내 입지선택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집적효과(agglomeration effect)가 입지에 주는 영향으로부터 요소부존에 의한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 동일산업에 속한 국내기업의 동일 지역 내 입지수를 대리변수로 사용하였고, 국경효과 및 기업의 계열관계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외국기업의 집적도 분석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르면, 일본 해외투자기업의 미국 내에서의 입지에는 광범위한 집적의 경제가 존재하며, 더욱이 일본기업간의 계열관계가 입지선택에 강한 영향을 주고 있

다고 밝혔다. 한편, Belderbos, Carree(2002)는 일본기업의 중국에서의 입지선택을 분석하였는데, 입지결정에서 특히 계열문제에 초점을 두었으며, 모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일본기업이 집적하는 지역에 입지하는 유인이 보다 높다는 사실을 밝혔다.

입지선정시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요소들로는 인력조달에 용이한 환경, 물류체계와의 인접성, 전용산업단지의 편의성을 들고 있으므로 입지를 위한 지원은 매우 중요한 정책요소가 된다. 실제로 투자기업은 입지 인프라 부족을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들고 있다. 물류환경 역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교통체증비용, 높은 운임 및 부대비용 등의 높은 물류비용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연구개발 인프라 역시 중요한 투자유치 인프라이며, 지적소유권제도의 미비, 우수연구인력 확보 곤란, 정부지원 및 동기부여 미비 등 연구개발 인프라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표 2〉 대구경북지역의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분포현황(단위 : 건, %)

지역	제조업전체			서비스업전체		
		경공업	중공업		지식기반	일반
전국	2581	438	2143	10595	1969	8626
대구	57(2.2)	6(1.4)	51(2.4)	149(1.4)	9(0.5)	140(1.6)
경북	85(3.3)	14(3.2)	71(3.3)	26(0.2)	7(0.4)	19(0.2)

자료 :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외국인직접투자통계 중 일부 정리

〈표 3〉 대구지역 외국인 투자기업수의 업종별 투자현황

구분	계	제조업				서비스업	무역업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타		
업체수	331	27	18	33	24	125	104

<http://daegu.investkorea.org>

통계청 자료(2010)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외국인 투자기업(16,656개사)에서 대구·경북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구가 0.20%(331개사), 경북지역이 0.10%(166개사)에 불과하다. 대구·경북지역의 비율을 모두 합해도 1%가 되지

않는 이유는, 타 지역과 유사한 형태의 지원과 투자인센티브제도를 갖고 있을 뿐, 지역산업의 특화를 유도하거나 기존의 클러스터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⁶⁾. 이에 비해 대구지역의 외국인 투자기업⁷⁾ 317개사 중 일본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62개), 경북지역은 38%(166개사)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차지하는 전체외국인 투자기업의 비율에 비해 일본인 투자기업의 비중이 얼마나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려주는 수치이다⁸⁾.

대구의 대표적인 일본인 투자기업으로는 삼익THK(직선운동베어링, THK), 남양금속(Hitachi Metal), 평화오일실(NOK), 한국OSG(OSG), 한국대풍(Taiho) 등이다.

3.2. 현황분석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만 특혜를 제공해야 하는 타당성은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제도가 선진화되면서 점차 퇴색되고 있다. 즉, 한국이 OECD 회원국이 되고, 외환위기 이후 각종 경제관련제도가 선진화되면서 외국기업의 한국에서의 외국인 비용이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경제가 발전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기술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과거 반도체 및 전자산업 등에서 볼 수 있었던 외국기업의 국내 기술이전에 대한 기대 역시 크게 낮아지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의 일본인 투자기업 역시 한국기업과의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면서 이제는 자신들의 경쟁력 원천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기술유출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기업의 기술이전을 통해 국내

6) 투자인센티브란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수익률을 올리거나 비용 및 위험을 감소시켜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을 말한다.

7) 일반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간접투자과 달리 한명의 외국인 투자자가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통해 투자비율 10% 이상을 외국인직접투자자로 정의하고 있다. 단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라도 투자한 당해 외국법인에 임원을 파견한 경우, 1년 이상의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리고 직접투자한 외국법인에 상환기간 1년 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도 외국인 직접투자자로 간주하고 있다.

8) 현재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 역시 일본계 기업이다. 2007년 기준으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인 KIS Value에 수록되어 있는 1,700여 외국계 기업 중 일본계 기업은 600여개로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표 4〉 2008년 대구·경북지역 진출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법인 수

구분	진출종류별	소계	외국인투자기업	국내지점	연락사무소
소계	합계	9,612	-	-	-
	외국인투자기업	-	6,593	-	-
	외국법인	-	-	1,569	1,450
대구	합계	114	-	-	-
	외국인투자기업	-	98	-	-
	외국법인	-	-	13	3
경북	합계	152	-	-	-
	외국인투자기업	-	113	-	-
	외국법인	-	-	30	9

〈표 5〉 외국인직접투자 현황(FDI신고기준, 단위 : 건, 백만불)

내용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국건수	2569	3077	3669	3107	3559	3744	3131
전국금액	6471	12792	11566	11242	10514	11705	11484
대구·경북건수	54	80	82	nc	34	33	31
대구·경북금액	108	437	401	nc	654	467	445

자료 : 2010년 9월 3일 기준 Kotra FDI 신고금액 기준으로 작성

대구·경북지역의 전국대비 투자건수 기준을 살펴보면, 2007년 0.95%, 2008년 0.89, 2009년 1.02%에 불과하며, 금액 기준으로는 2007년 6.2%, 2008년 4%, 2009년 3.9% 등 투자건수에 비해 금액 기준이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구·경북의 기업투자유치 경쟁력이 수도권 및 타 지역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다. 2006년 10월 11일 영남일보 3면의 기사에 의하면, 기업유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확대’(대구 33.3%, 경북 27.1%), ‘산업인프라 구축’(대구 28.9%, 경북 34.7%), ‘지자체 적극적 기업유치활동’(대구 16.1%, 경북 19.4%) 등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엄창옥·채철현(2007)은 위 기사 내용 중 중요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강조하였는데, 즉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과 행·재정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표 6〉 대구·경북지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제도

지원	대구지역 투자유치지원제도	경북지역 투자유치지원제도	
입지지원	부지매입가의 1% 보조 투자규모, 기술, 고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대 50%까지 보조	공유자산임대료 감면	
임대료감면	100만불 이상 고도기술사업:100%감면 500만불 이상 일반제조업: 75%감면 대규모 FDI:100%감면	100만불 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무상 100만불 이상 일반제조업:75%	
고용보조금 지원	20인 이상 신규고용사:1인당 10~50만원 6개월간 지원 지원기간: 등록후 5년까지	1인당 100만원까지 6개월까지 지원: 기업당 최대금액 6억원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20인 이상 고용 후 훈련사:1인당 10~50만원 지원기간: 등록 후 5년까지	1인당 100만원까지 6개월까지 지원: 기업당 최대금액 6억원	
조세 감면지원	법인세 및 소득세	고도기술사업, 대규모FDI: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1천만불 이상 제조업, 500만불 이상 물류업의 경우: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개발형 외국인투자지역 FDI: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대규모FDI : 제조업 1천만불 이상, 물류업 500만불 이상: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등록세 및 취득세	고도기술수반사업, 대규모FDI, 입주기업 10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개발형 외국인투자지역 FDI: 15년간 100% 대규모 FDI: 100%
	재산세		대규모 FDI: 5년간 50%
	관세	조세감면 대상으로 인정된 사업:소요되는 자본재 도입시 3년간 100%	
행정서비스 지원	공장등록, 부지알선, 행정절차 원스톱 서비스		
기타지원	PM지정 운영: FDI별로 PM을 지정		

대구·경북지역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소득, 배당소득, 기술도입대가, 근로소득 등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고,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도 감면해 주고 있다. 특별히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감면대상사업에 투자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투자부분은 조세감면 대상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즉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국내 재

투자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한다.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감면과 관세 등을 면제해 주는 혜택, 그리고 배당금에 대한 조세지원 및 기술도입대에 대한 조세 면제 등의 특혜를 주는 등, 그 외 다양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지원의 대상이 되며, 지원율은 협상을 거쳐 최소 FDI의 5% 이상을 지원하되 상한선을 비공개 산식에 의해 결정하며, R&D 센터의 경우에는 FDI 이외에 해외에서 조달되는 연구개발비 중 규정된 용도에 사용되는 자금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한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은 크게 단지형과 개별형으로 나누어 제공하는데, 단지형의 경우 국가 또는 일반 지방산업단지 중에서 중소기업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일정구획을 미리 임대 또는 분양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개별형의 경우 대형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자의 기호에 맞추어 투자자가 원하는 지역, 시기, 인센티브를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장 단위로 지정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하여 지정된 단지형 투자지역으로는, 경북 구미(2002. 11. 6)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었으며, 개별형 투자지역은 경북 구미의 'Toray 새한(화학소재)', 'DGA(PDP 유리기관)', '한옥테크노글라스(PDP 유리기관)', '아사히피디글라스한국(주)(PDP 유리기관)' 등의 일본인 투자기업이 있다.

IV. 일본인 투자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본인 투자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단기와 중장기적 파급효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1. 단기적 파급효과

우선 지리적으로 국토 남동부의 허브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대구는 수도권,

충청권, 부산·경남권과의 연계성을 이용하여 물류유통의 거점지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류유통기능이 강화될 경우, 기업들은 제품의 원료도입, 생산제조단계, 소비유통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생산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한시간 반경대의 주변도시를 포함한 인구는 약 5백 20만의 거대시장이 생성되는 것이다. 즉 매출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물류비용이 절감되어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지역경제 규모가 확대될 수 있게 된다. 그러다 보니 내국인들이 당일에 업무를 보고 돌아가기도 하지만, 외국인들의 경우 관광 뿐 아니라 사업관련해서도 투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방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둘째,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 지고 정보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보전달이 용이해짐에 따라 서울과 지방간의 정보격차를 줄여 지방 대도시에서의 업무기능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중추관리기능의 지방분산이 가속화될 수 있다. 대구에는 특히 KTX 동대구역, 대구국제공항, 봉무지방산업단지, 종합유통단지 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산업 및 컨벤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다. 특별히 대구지역은 세 개의 초중고 외국인학교와 2,800여개의 의료기관, 그리고 다양한 호텔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정주여건은 훌륭한 편으로 평가되고 있다⁹⁾.

4.2. 중장기적 파급효과

대구지역을 일본에 알리는 계기가 됨으로서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경제력 집중과 부차적으로 부산지역에 집중된 경제력을 완화시켜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1인당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ion)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지역경제력 규모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문제는 이제 중앙에 호소하고 중앙정책에 의존하던 시대가

9) 초중고를 갖춘 대구시 소재 외국인학교는 TAS(Taegu American School), 글로벌크리스천스쿨, 화교학교 및 2009년에 개교한 대구외국인학교도 위치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2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학교설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시설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하였다.(2002. 9. 30 조례 제 3556호).

아니라, 지방 스스로 책임지고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역간의 경쟁에서 앞서가는 도시는 어느 나라에서나 시민들이 열성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들이다. 엄창옥·채철현(2007)은, 대구·경북지역에 기업 및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대구·경북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가칭)을 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지자체간 상호 협력을 유도하고 지금까지의 기업유치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신뢰형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에 위치하는 기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하나는 지역생산과 지역고용에 미치는 효과(양적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의 관련산업에 미치는 전후방 연관효과(질적효과)이다. 특히 국내외 투자유치기업의 경우 그 업종이 지역산업과 연계됨으로서 지역기업과 유치기업간의 전후방연관효과를 강화함으로써 산업클러스터를 심화시키고 지역산업 특화도를 강화시키는 것이 기업유치가 지역산업에 미치는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FDI로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여 직접적으로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FDI가 인수합병의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피인수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고용감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집약적인 생산방식을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용할 경우 이러한 고용감소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으로 인해 경쟁에서 뒤쳐진 일부 국내기업들이 퇴출당하거나 생산을 줄이게 되면 고용감소효과는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외국인 직접투자의 순효과는 고용에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어떠한 영향이 더 우세한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¹⁰⁾.

대구·경북의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유치한 FDI를 업종별로 분석하면, 대구·경북이 상호의존적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조업에서는 기계장비, 전기전자, 운송용기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섬유산업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유치된 해외기업이 대구·경북의 특화산업구조

10) 이에 대해 연태훈(2004)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간접적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직접투자가 해당 산업의 고용 및 전후방 연계효과를 통해 상·하류 산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의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수도권소재 기업은 공장용지 확보와 저렴한 생산비용을 상대적으로 중시하여 이를 지방이전의 1차적 매력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함으로써 협력업체 등의 집적을 통한 집적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동시에 개인적인 지역연고와 같은 것도 매우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이다.

한편 일본인 투자기업 유치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보유한 잠재력과 세부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한 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요소들을 극대화해 나가는 종합적인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와 동시에 지역의 경제주체들은 일본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와의 연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필요할 뿐 아니라 관계당국과의 합리적인 협조와 지방정부가 각종 경제대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일본인 투자기업으로 인해 대구·경북지역의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인 투자기업이 지역경제 그 자체를 활성화 해 주고 이를 보장해 주는 충분조건은 아닐 것이다. 이 지역이 지닌 잠재력과 대응자세에 따라 지역경제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FDI로 인해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오히려 고용과 투자가 감소할 수도 있으며, 게다가 경쟁력에 뒤처진 국내 기업들이 퇴출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 유입된 FDI의 효과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잠재적 경쟁상대가 이롭게 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기술의 유출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생산성 파급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정책을 강화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FDI의 효과가 어떠한지를 엄밀하게 평가해 볼 필요는 있다.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가별, 업종별, 입지별로 구분하여 인센티브를 차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지역산업과 연계를 통해 성장동력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투자유치 지원전략이 필요하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일본인 투자기업 등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 결정요인일 수도 있겠지만, 기업경영자의 네트워크 관계, 그동안의 신뢰관계 형성 및 주변지역과의 물류 및 운용비용의 절감 등이 주요 투자유인(誘因)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일본인 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 이외에 더불어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정책, 즉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1998~2009년까지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규모는 1962~1997년간 유치된 규모에 비해 약 5배 이상에 달하는 유치실적을 가져왔다. 투자분야는 전통적인 제조업 위주에서 금융·유통·관광 등 서비스분야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에 대구·경북지역은 일본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정비 및 생산설비시설 등을 확충하여 장기적 차원에서 기업하기 좋은 정주환경을 구축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중앙정부에 대한 일방적 의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해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모든 노력과 대구·경북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방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주해 나간다면, 글로벌 경제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홍보전략도 필요하다. 다행히 대구·경북지역은 외국기업뿐 아니라 국내의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잠재력도 보유하고 있으니 이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고석남(2006)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결과들이 상이한 원인은』 금융경제논총 제19권 제3호.

- 김삼수(1996) 『재한국 일본계 투자기업의 인사정리, 노사관계: 한일 비교의 시각에서』
한일경상논집 12.
- 박재곤·이원빈(2005) 『기업의 지방투자 실태와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 엄창욱·채철현(2007) 『대구·경북 공동투자유치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연구원.
- 이기동·황석준·이민환(2008)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선택: 수평적·수직적 집적
효과를 중심으로』 국제통상연구. 제2권 제1호.
- 이병기(2002)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연구 02-21.
- 이형오·한민경(2005) 『일본기업 한국시장 진출형태에 관한 연구』 한일경상논집 30.
- 장윤중·한병섭(2001) 『외국인 직접투자 조세지원제도의 운용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 황석준 외(2009)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원인과 경로분석-대구·경북 사례로-』 지역사
회연구 제17권 제4호.
- 奥田 聰(2002) 『在韓日本系企業の営業現況と事業拡張要因』 동북아경제연구, 14-3.
- Belderbos, R. and M. Carree(2002) 'The Location of Japanese Investments in China: Agglomeration Effects, Keiretsu, and Firm Heterogeneity,' Journal of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cs, Vol. 16
- Head et al.(1995) 'Agglomeration Benefits and Location Choice: Evidence from Japanese manufacturing Investmen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38.
- Kang, S.J.,(2005) 'The Impacts of Foreign Ownership on the Productivity of Korean Manufacturing Firms,' The Korean Economic Review, 21(1).
- Newman & Nollen(1996) 'Culture and Congruence: The Fit between Management Practices and National Cultur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7(4).
- UNCTAD, (1999)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Challenge of Development', World Investment Report.

❖ 투고일 : 2010.12.31

❖ 심사일 : 2010.01.31

❖ 심사완료일 : 2011.07.28